



사진 : 김지백 바오로(거제동성당)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2024년 10월 13일

입 당 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 1 독 서 지혜서 7,7-11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 하리이다.



1.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2.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3.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 서 히브리서 4,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코 10,17-30

영성체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가진 것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겨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한 아이가 아장아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곁에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신부님께 선물로 드려.”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 아이에게 사탕은 가진 것 전부일 텐데.’ 그 아이는 선뜻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사제관의 책장 위에는 그 아이가 준 사탕이 있습니다. 그 사탕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저없이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의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으며 무엇이 부족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것을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면, 지금껏 쌓아온 나의 노력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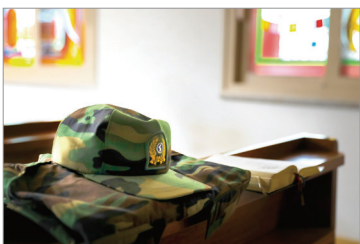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던 한 아이는 신학교에 갔고 마침내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사제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압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사제가 될 수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본기도) 그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서강진 스테파노 신부
서대신성당 성사담당



작품
영감



군인 주일을 맞아, 군종 사제를 비롯한 국군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또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사진 : 김지백 바오로(거제동성당)

爲羊獻身 司祭本分(위양헌신 사제본분)

신부님 수단의 겉모습만 보고 옷의 의미는 모른 채 동경했던 한 아이는, 욕심이 많았던지 군복과 사제복을 동시에 입고 그 옷들의 의미와 무게를 삶으로 살아내는 군종 사제가 되었습니다. 앞선 일화처럼 삶 속에서 제복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다양하며, 제복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옷이 주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은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렇듯 많은 분야에서 제복을 입은 까닭은 제복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복은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지게도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힘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은 도마 안중근의 爲國獻身 軍人本分(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모토로 삼아 활동하며, 이 의미를 외적으로 드러낸 군복을 매일 입음으로써 그 정신을 몸에 새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군의 일원으로 매일 군복을 입습니다만 군종 사제는 보통의 군인과는 다르게 군복 속에 로만칼라를 착용합니다. 제복은 그 직업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처럼, 군종 사제의 정체성은 바로 “군복 입은 성직자”일 것입니다. 군복이 나타내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에 더해 그 속에는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제2의 예수라 부르는 사제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듯, 육해공 103명의 군종사제들은 안보 위기

의 상황 속 전후방 각지에서 장병들과 동거동락하며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주님의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7회 군인 주일입니다. 국군 장병과 군종 사제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인 환대(hospitalitas)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군 복무를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로해 줄 환대를 우리의 정성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엄중한 현 상황 속 그들의 헌신을 통해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안다면, 장병들에게 따스함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환대를 전해주고자 군종 사제들은 사제 본분인 양들을 위한 헌신을 마음에 새기며, 사제복과 군복을 갖춰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으로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군종 사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전재경 요셉 신부
전승(제51지역방위사단)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울산	녹산(서부산)	마산	오늘의 강론	
		FM101.1MHz	FM93.7MHz	FM101.5MHz	FM101.7MHz	월~토 06:50 (재) 16:50	10.14(월)~10.19(토) 서강진 신부(서대신성당 성사담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0.18(금) 14:00~16:00 진행: 김진호 신부, 박소정 찬양사도 1부 <생활성가 플리마켓> 출연: 여상민 베드로 신부(육군 제53사단) 신부들의수다 10.19(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나오소> 2024 새 신부 특집 2 출연: 이동훈 미카엘 신부(중앙 보좌)							

너의 웃음이 아이답기를 바라며

“저 아이는 참 어른스러워, 의젓해.” 어른은 쉽게 아이를 판단하고 칭찬인 듯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아이가 어른스럽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들어도 어리광 부리지 않고 제 역할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고... 어른도 어른스럽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친구예요.” 선생님은 모범생인 하은(가명, 13세) 양을 칭찬합니다. 밝고 쾌활한 하은 양은 얼핏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애 엄마가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사서 꾸준히 읽게 하더니, 그 습관이 붙었나 봐요.” 하은 양의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손녀에게 고마워합니다. 사실 외할머니는 딸의 건강 상태와 생활비 걱정으로 손녀의 학교생활과 마음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하은 양의 어머니는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샘 저하증, 우울증, 공황장애와 발작으로 말미암은 낙상 후유증... 결혼 실패 이후로 그녀가 얻은 질병입니다. 어머니는 딸은커녕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입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하은 양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 외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에서 병원비를 제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하은 양과 곁으로 돌봄이 필요한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빠랑 살았는데 그 동네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엄마한테 가겠다고 했어요.” 먼 타지에 사는 하은 양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이 가정은 정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하은 양은 아버지와 지낼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외할머니와 사는 어머니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에도 재능을 보이며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마음 둘 곳 없는 어린이의 마음이 관찮을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가 아이답고 어른이 어른다우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을 겪으며 아이는 애어른이, 어른은 철없는 어른이 되고는 합니다. 성장기에 잘 먹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은 양의 웃음이 아이답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청해 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지’라며 그녀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올리고 나아가 부르심까지 느낀다면,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실 것만 같습니다.



사회사목국(051-516-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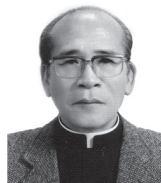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 131-016-582122
부산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7. 10. 14.
하 Trauner
(안토니오)
몬시뇰



2017. 10. 17.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



1978. 10. 19.
김경우
(알렉시오)
신부님

가톨릭센터 소극장,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



가톨릭센터 소극장이 ‘공간101.1’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0월 5일(토)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가진 ‘공간101.1’은 cpbc부산가톨릭 평화방송 공개홀과 다목적 공연장, 단체룸, 카페 등 여러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톨릭센터(관장: 장용진 신부)와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사장: 박명제 신부)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이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고자 ‘공간101.1’을 마련하였으며, 교구민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9월 29일~10월 5일] 합계: 105,675,540원, 누계: 3,443,833,205원

김범우순교자성지 100,000,000 무거주일학교 275,540 천곡만민의어머니 100,000 초창항금궁전 200,000 433차꾸르실료동 300,000 서원용 30,000 부산가톨릭합창단 1,000,000 장현선 1,000,000 박무자 500,000 김하늘 200,000 지귀복 200,000 전명진 10,000 권해숙 10,000 이복신 50,000 이정희 100,000 김수빈 100,000 윤태수 100,000 조길순 150,000 김선순 50,000 김수련 50,000 장명화 50,000 이둘숙 20,000 박윤희 50,000 전경희 100,000 이동규 100,000 남소울 100,000 도용희 100,000 이정춘 50,000 강연아 30,000 김규태 10,000 김재준 10,000 김효리 50,000 박진성 100,000 정향순 100,000 이향자 100,000 김영미 100,000 김용주 30,000 김상하 50,000 배하준 20,000 정태순 50,000 정경애 30,000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대 십자가’에 ‘수난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없어도 되나요? 제대 십자가를 여러 개 둘 수 있나요?

제대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제대 위나 가까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아”(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08항) 두는데, 이것을 ‘제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effigies Christi crucifixi)이 없거나, 작가의 과도한 창작력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 등으로 대체된 것은 제대 십자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제대 십자가가 제대 신학의 표상이기에, “새 성당을 지을 때 제대는 하나만”(총지침 303항) 세우듯이 제대 십자가도 “하나만 있어야”(총지침 122항)합니다. 만일 제대 십자가가 따로 없다면 입당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를 제대 옆에 세워둡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수난

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전례가 끝난 후에도 이 십자가를 제대 곁에 세워둡니다.

제대 뒤편 제단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제대 위나 가까이에 십자가를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제대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을 때 제대 곁에 다른 십자가를 세워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입당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는 제대 옆에 아니라 품위 있는 다른 곳에 놓아둡니다.

제대 십자가는 ‘제대의 이름표’와 같기에, 제대에 분향할 때 제대에는 절하지 않으며 십자가 분향 전후에 절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제대 위나 곁에 있는 십자가에는 제대보다 먼저 분향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제가 십자가 앞을 지나갈 때 분향합니다.(총지침 277항)

■ 전례위원회

교 구

예신 월모임

· 10.20(일) 12:30 접수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문의 : 629-8760(성소국)

본 당

장산성당 은혜의 밤

· 10.21(월) 18:30~22:30
강사 : 이철희 신부(영성의집 부원장)
문의 : 010-9665-8258(성령기도회장)

양산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 한글 및 엑셀 숙련자 / 문의 : (055)386-2065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본당신부추천서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회의마을 10월 부산후원회미사

부산 : 10.14(월) 11:00 남천성당 소성전
문의 : 782-0765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10.14(월) 19:30 · 가톨릭센터 3층
주제 : 소형원자로의 등장과 위험성
- 양의원영(탈핵환경운동가)
문의 : 465-9508(미사와 무료강의)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 10.14(월) 10:30 · 문현성당 / 문의 : 467-1045
후원계좌 : 부산 101-2077-2523-00 / 농협 301-0298-1668-41(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빛돌레 나눔가게가 2024.12.31까지만 운영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5(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울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6(수) · 북산성당 소성전
14:00 성체현시 및 기도, 15:00 월미사
지도 : 김수진 신부 / 문의 : 010-7685-4285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10.17(목) 10:30 금정성당
주례 : 박근혁 신부(제10전투비행단 화성대성당)
울산 : 11.1(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김창환 신부(21보병사단 백두산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0.17(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 임시성전
주제 : 124위 한국 순교 복자 소개
문의 : 515-0030

푸르실로 참가신청

451차 자매 : 10.17(목)~20(일)
452차 형제 : 10.24(목)~27(일)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비아회 야유회

· 10.14(월) 08:00 교구청 출발
· 청도 성모솔숲마을 / 문의 : 010-4541-3239

무료진료소 도로시의집 봉사자 모집

· 일 14:00~17:00(월 1회 또는 격월 1회)
대상 :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문의 : 010-4499-0100(노동사목)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10.14(월) 12:00~16:00
- 월요찬양미사 · 기도회(안수)
· 10.14(월), 10.28(월) 19:30 전포성당
- 수요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 10.16(수) 13:00~15:30
- 금요밤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 10.18(금) 19:40~22:30
- 499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 10.25(금) 18:30~27(일) 17:30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목요 밤 미사 : 10.17(목) 20:00~22:30
문의 : (052)244-7014

라우다떼윈드앙상을 제12회 정기연주회

· 10.14(월) 19:30 · 온천성당
지도 : 신요안 신부, 지휘 : 이수영, 단장 : 황순호
*단원 대모집 - 색소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혼, 트럼펫, 트롬본, 일렉, 드럼, 키보드
문의 : 010-9503-0977

쌍두스 챔버콰이어 창단연주회

· 10.19(토) 17:00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우정출연 : 첼리스트 이슬, 안젤리카 합창단
문의 : 010-8519-0621

제2회 cpbc 어울림누리 아름다운 성가 동행음악회

· 10.19(토) 17:00
·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공개홀 101.1
출연 : 고영옥, 김혜선, 박성원, 신경옥, 서세정, 김춘하, 강현숙, 민정식, 이용웅, 이상윤
문의 : 010-4434-6605(교부수) *무료입장

젊은이들을 위한 몸신학 특강

· 10.25(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주제 :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인가?"
강사 : 최봉근 선교사(가톨릭 세계복음화 ICPE 선교회) / 문의 : 809-0642(센다)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개인간병(65세 미만), 완화병동보조인력(62세 미만, 자격증소지자)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근무
문의 : 933-7042, 010-3572-7045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10.26(토) 출발 : 수영장대순교성지(13:00),
온천천입구(14:00), 도착 : 오륜대순교자성지**

경유 : 동래역(15:00)-장전역(16:00)-오륜대성지(16:40)-파견미사(17:00)

문의 : 629-8713(교구평협 사무국, 사목기획실)

서울 공예

목주반지 전문 금방
패션제품, 예물, 커플링
황근영(바울라) (주.아) 631-5006~7
범일역 12번출구 중앙귀곡속 115호

오두종 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요한)
805-0200
서면 주디스타워 맞은편 우리은행 5층

눈시원 안과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이현석(분도) 631-6622
범내골역 2번출구 제2향운병원 4층

법무법인 로앤케이

변호사 김형욱(그리스도 폴) 연세대 출신
KNN 이것이 법이다 고정출연 변호사
2대째 변호사. 아버지 김주성(야곱)
신자무료상담 010-6290-2933

성신익스프레스(영구이사)

이사전문, 청소상담, 기업이사
어려운 이웃돌봄(무료이사상담)
대표 : 김명수 대건안드레아
대표번호 010-8521-2488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남구점

주간보호, 방문요양 - 석포성당 옆
매주 금요일 미사참례 동행
628-9088, 010-6684-8876
대표 조익점 라파엘, 센터장 김민진 율리야나

르노코리아 신차구매문의

르노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시
QM6 26백만원, LPG연비 16키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실연비 25키로
이건기 빈첸시오 010-8502-7514

가인방문요양센터

파킨슨, 노인성질환 및 거동불편 어르신
가족요양/장기요양 상담 및 신청대행
민병덕 (요한) 010-7448-7858
윤승신(보나) 010-4843-3012

제3회 부산가톨릭캠퍼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10.18(금) 19:30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특별출연 : 작곡(김현준), 오르간협연(박은정),
기장성당 청년밴드 그레우리(최지원, 노이서),
국악양상블(최경철, 김현경, 안하윤, 곽현아),
연합성가대(개금, 광안, 남양산성당 성가대)
지휘: 김정웅, 단장: 원성현, 지도: 손지호 신부
입장료: 전석초대 / 문의: 010-7590-8521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및 시설): 몸이 불편하신 분
파견교리(본당):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
문의: 519-0490(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0.17(목) 10:00 · 월평성당
· 10.18(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010-9081-1743, 582-1774

이태석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 10.19(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241-1601

책과 함께하는 1일 책피정

· 11.9(토) 10:00~16:00 / 회비: 1만원
· 세인트폴북스토어(성바오로수도회)
대상도서: 침묵 (바오로딸출판사)
문의: 010-2059-6260, www.paolo.cafe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자모집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5195-3217(성소부)

밀양가르멜수녀원 10월 후원 미사

· 10.22(화) 10:30 (매월 3번째 화요일)
· 남천성당 / 주례: 박종주 신부
문의: (055)353-6597

천주최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모임

· 10.19(토) 14:00 ·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회 성소모임

대상: 고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6221-352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0.19(토)~20(일)/11.2(토)~3(일)
3박 4일: 10.24(목)~27(일)/11.28(목)~12.1(일)
8박 9일: 11.14(목)~22(금)/12.26(목)~1.3(금)
40일: 12.14(토)~1.22(수)
· 부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2차: 11.2(토) 14:00 / 대상: 현재 초6, 중1
문의: (054)338-0530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gyo6.net/sanjayeo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5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14(월)~12.14(토) / 접수방법: 일
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02)460-7533(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
성·기금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
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3~6, 11.18~21
11.24~27, 12.1~4, 3.1~4, 4.27~30
생태순례: 11.14~16, 12.7~9, 12.13~15
연말연시특별피정(한라산): 12.30~1.2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눈꽃산행 접수중)
자연순례: 11.7~9, 11.21~23, 12.1~3, 12.6~8
한라산포함: 1.11~13, 1.16~18, 1.20~22, 2.1~3
추자도포함: 11.16~19, 11.25~28, 3.13~16
연말연시(한라산): 12.29~1.1(해님/해돋이)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작은형제회 2025년 이탈리아 순례

78차: 3.19(수)~31(월) 550만원
79차: 6.10(화)~22(일) 550만원
· 이탈리아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 센터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463-7866
내방상담: 월~토 10:00~16:30(동래 명륜역
2번 출구)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토 10:00~16:30 청소년 상담 및 일반성인 상담
조옥진 신부(상담학 박사): 영성심리상담 및
고해식 상담 -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상담
운영자: 김정애 회장,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일·공휴일 11:00 13:00 15:00 17:00
2중 패키지 출시 ; 스페셜 특전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Alter Christus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메리놀병원과 부산성모병원은
부산교구 소속으로 의료원장 신부님을
비롯해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입원 시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혜택 제공
2. 성당 및 원목실 운영으로
매일 미사 봉헌과 방문기도, 영적상담 가능

대표전화: 465-880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문의: 461-2471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바 루 내 과 의 원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소화기질환 고혈압, 당뇨,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문재현, 이재형, 박기태(베드로) 온천장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김용기내과의원(구.김동수내과) 원장 김용기, 부원장 김인주, 부장 김영민 김지량, 안강희, 오민영, 김상미, 김정미, 이욱 평일 8:30~17:30 토 8:30~12:30 1호선 자갈치역 3번출구 245-7100	독 일 보 청 기 독일정품,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보조금상당,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렬대로229 수안역 7번출구	유 창 훈 내 과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전문 신기동 양산우체국 옆 유창훈 베드로 원장 055-785-6000
50년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술품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50m	길 맥 흥 부 외 과 -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 레이저, 고주파, 모카, 발거술, 정맥절제술 원장 박동욱 안드레아 754-9975 해운대 센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박숙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화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학박사 박숙현 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출구, 대남빌딩 5층	가 톨 릭 여 행 사 1.7 유럽4개국 성모님3대발현지 12일 1.17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12일 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